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일련의 증오 범죄 수사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뉴욕주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NYS HATE CRIMES TASK FORCE) 발표**

*첫 번째 세미나는 오늘 맨해튼에서 개최되며, 140명 이상의 법 집행 요원이 이번 세션에
등록*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경찰이 뉴욕주 사법정의서비스부(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 및 뉴욕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과 협력하여 주 전역의 법 집행 기관들을 위한 4회의 혐오 범죄 수사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오늘 맨해튼에서 진행되며 140명이 넘는 법 집행 요원이 이 세션에 등록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어떤 형태의 편견이나 차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뉴욕주와 미국에 걸쳐 모든 종류의 혐오와 반유대주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우리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이 혐오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고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선 노력의 일환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혐오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뉴욕과 전국에서 반유대주의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더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Hate Crimes Task Force)에서 주최하는 일련의 교육 세미나는 주 전역의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교육 세션에는 뉴욕주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Hate Crimes Task Force)에 포함되는 주 경찰, 사법서비스부(DCJS) 및 인권국(DHR)의 직원들과 반 유대주의 대항 동맹(Anti-Defamation League), 뉴욕 유대인 지역사회 관계 협의회(Jewish Community Relations), 뉴욕 및 퀸즈 카운티 지방검사실(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이 있습니다. 맨해튼의 교육에는 뉴욕주 경찰(NYPD)의 프레젠테이션도 포함됩니다. 세션에서 다루는 주제는 대응 법 집행을 위한 범죄 조사 개요,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의 배경, 증오 범죄 기소, 고용, 주택 및 공공 주택 부문의 반차별법 집행 등의 혐오입니다.

맨해튼에서 오늘 개최되는 첫 번째 교육 외의 교육들은 뉴욕주 주변의 다른 장소에서 제공됩니다.

- 2019년 9월 24일 - 이리 카운티
- 2019년 9월 25일 - 오논다가 카운티
- 2019년 10월 17일 - 올버니 카운티

교육 세션은 법 집행 기관의 선출직 또는 민간인 구성원, 검사, 가석방 및 보호관찰관 및 교정 관찰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법 집행에 민감한 교육의 특성으로 인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Keith M. Corlett 뉴욕주 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육 세션을 통해 주 경찰과 법 집행 파트너는 혐오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최신 법적 문제와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노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공적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Michael C. Green 집행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경찰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과 협력하여 이 일련의 세미나를 열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혐오의 대상이 개인이거나, 단체 또는 일부 재산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편견과 혐오 동기 범죄는 우리 주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혐오 범죄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모범 사례에 대한 법률 집행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받으면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커미셔너 Angela Fernand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육은 가해자들이 혐오 범죄와 편견 사건에 관여할 때 뉴욕주가 최대한의 법적 처벌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 부서는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Hate Crimes Task Force)와 계속 협력하여 차별과 편견 없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 권리를 뉴욕 주민들에게 교육할 것입니다."

이 교육은 뉴욕이 로랜드 카운티, 퀸즈, 롱아일랜드에서 반유대주의 낙서 사건에 대해 3건의 개별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편견 관련 사건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혐오와 편견 관련 사건들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뉴욕 주민들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쉽게 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 새로운 혐오 범죄 텍스트 라인(Hate Crimes Text Line)의 개시를 포함하여 최근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편견이나 차별을 목격 혹은 경험하신 분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포함한 자세한 사건의 경과와 함께 81336번으로 "HATE"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십시오.

이 텍스트 라인은 주립 인권국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1-888-392-3644)이 운영하는 편견 및 차별 신고 무료 직통전화에 추가됩니다. 2016년 11월 개시 이후, 직통전화를 통해 23,40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으며 잠재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주립경찰에 187 건을 의뢰했습니다. 긴급 상황의 경우 혹은 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항상 911에 신고하십시오. 또한 혐오 범죄자 체포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모든 제보에 5,000달러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성별, 종교, 종교적 관습, 연령, 장애 또는 성적 성향에 관한 인식이나 믿음 때문에 희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시된 일련의 범죄행위 중 하나를 범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해당 유형의 인식이나 믿음의 결과로서 범해지는 경우, 해당 범죄자는 혐오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혐오 범죄는 개인, 개인들의 집단, 또는 공공 재산이나 민간 재산을 상대로 범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 법률에 따라, 인종, 출신 국가, 종교, 민족, 그리고 그 밖의 보호받는 많은 분류 사유에 기초해서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